

경영자의 마인드

- [주]에프에코 대표이사 인터뷰 -

<기업개요>

- 회사명 : (주)에프에코
- 소재지 : 広島県福山市曙町一丁目12番15号
- URL : <http://www.fpc.co.jp>
- 설립연도 : 1962년
- 분야 : 폴리에틸렌 페이퍼 및 기타 합성수지 식품용기 제조 판매, 포장재 판매 등

위기(1) 70년대후: 주력 상품이 판매 불능으로 →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로 살아남았다
위기(2) 80년대초: 가격경쟁 격화로 이득이 없어진다 → 독자적 상품을 개발했다
위기(3) 80년대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큰 부채 → 사람의 은혜로 살았다
위기(4) 90년대후: 쓰레기처리 문제가 심각화 → 재활용사업 실현했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왔던 결과, 비용 경쟁력 강화, 최고액 갱신

1. 힘들 때 도망가면 회사는 망한다

「나는 재능이 있다」고 자만에 빠지면 우기에 빠진다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여 스스로 해결한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365일 위험 관리를 한다

2. 「망하는 공포감」을 「도전하는 용기」로 바꾼다

경쟁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다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사고방식을 지킨다

3. 난국에 직면하면 다른 회사보다 먼저 앞서간다

이득만을 생각하지 말고 회사와 사원의 존속을 먼저 생각한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거래처의 협력을 얻는다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무조건 1등을 지향한다

4. 사원이 일을 잘 해도 칭찬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혼내지 않는다

사원이 일은 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경영자는 일을 맡겨서 지켜보기만 한다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를 익히게 한다

5. 은행이 돈을 「빌려가라」고 하기 전까지 빌리지 말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에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실적을 공개한다

어음 발행을 그만 두지 않으면 경영은 언젠가 실패한다

회사의 숫자(경상이익, 순익 등)를 모르는 것은 경영자로서 실격이다

6. 호조 상태는 계속되지 않는다, 빈틈을 보이지 말자

<참고문헌>

『日経トップリーダー』2009年9月号